공주·서울 찍고 경주로…벌써 가슴이 설렌다

참가신청 예년의 2배 '뜨거운 열기'…서울달리기·경주마라톤 릴레이 신설

땀은 흘린 만큼 의미 있게 다가온다. 달리기 매력에 흠뻑 빠진 동호인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달리기 동호인들의 뜨거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을 3색(色)' 마라톤이 다가온다.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공주백제마라톤(9월)과 서울달리기대회, 그리고 경주국제마라톤대회(이상 10월)에 대한 동호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육상문화유산으로 지정된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 이어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가을 3색' 마라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마라토너들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가을 3색' 마라톤 참가자는 17일 현재 참가자가 예년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뜨거운 열기를 뿜고 있다. 서울달리기대회와 경주국제마라톤에 릴레이부문이 처음 신설된 것도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전국 건각들의 열정을 북돋고 있는 가을 3색 마라톤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봤다.

1 공주백제마라톤

9월8일 출발…가을마라톤의 시발점

GONGJU MARATHON

2019 공주백제마라톤은 9월 8일 오전 9시 공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한다. 풀코스(42.195km)와 하프코스는 물론 10km, 5km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대회 홈페이지(www.gongjumarathon.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3월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참가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미 접수를 마쳤다. 특히 이 대회 코스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포함돼 달리는 재미를 더했다. 동아일보사 가을마라톤의 시발점으로 큰 의미를 지닌 이 대회는 유튜브와 네이버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2 서울달리기대회

10월13일…엘리트 선수들과 나란히

2019 SEOUL RACE 서울달리기대회

서울 도심과 한강변을 맘껏 달리는 서울달리기대회는 10월 13일 오전 8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다. 올해 신설된 2인 릴레이는 2명이 함께 출발해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이색 경기. 첫 번째 주자의 앞 5km, 두 번째 주자의 뒤 5km 기록을 합산해 팀 기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서울달리기대회는 2015년부터 엘리트 선수와 동시에 출발해 기록 경쟁을 할 수 있는 오픈 국제부문이 신설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하프코스와 10km에도 도전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seoul-race.co.kr)를 통해 가능하다.

3 경주국제마라톤

10월20일 스타트…채널A서 생중계

GYEONGJU MARATHON

1994년 국내 최초의 마스터스대회로 출범한 경주국제마라톤은 지금도 영남권 최대 마라톤 축제로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한다. 대회 홈페이지(www.gyeongjumarathon.com)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0일 오전 8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는 물론 풀코스를 4명이 나눠 달리는 42195 릴레이도 신설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단체버스 또는 도보로 2번~4번 주자가 이동해 배턴을 이어받는다. 이 대회는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019년 동아일보사 주최 공주백제마라톤대회,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서울달리기대회(왼쪽부터) 공식 기념 티셔츠.

달리기 동호인들을 설레게 하는 가을마라톤이 다가온다.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공주백제마라톤과 서울달리기대회, 경주국제마라톤대회(사진 위부터)가 그것이다. 9월 8일 출발하는 공주백제마라톤대회가 그 출발점이다. 사진은 지난해 각 대회 모습. 스포츠동아DB

서울국제-공주-경주 완주하면 런저니 스페셜 메달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월에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참가자가 지방에서 열리는 가을 마라톤에 중복 접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공주백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 신청자의 70% 이상이 기존 서울국제마라톤 참가자다. 이에 따라 대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광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부터 서울국제마라톤을 완주한 참가자가 공주백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에서도 완주에 성공하면 완주 메달뿐만 아니라 특별 제작된 '런저니(Run Journey) 스페셜 메달'(사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런저니 스페셜 메달은 3월 열린 서울국제마라톤을 대회 넘버 '01', 9월 열리는 공주백제마라톤을 '02', 10월 예정된 경주국제마라톤을 '03'으로 매겨 디자인됐다. 스페셜 메달은 자격을 갖춘 개인 참가자에게 경주국제마라톤대회 당일 3개 대회 정상 참가 기록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지급한다.

메달 디자인은 각 대회 콘셉트 컬러인 레드(서울), 그린(공주), 블루(경주)를 사용했고, 3개 도시의 랜드마크를 가로선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목걸이에는 3개 대회 로고와 런저니 마크가 새겨져 있다. 단 5km 건강달리기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의는 전화(02-361-1425~7) 또는 이메일(marathon@donga.com)로 하면 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에듀윌 경매 전임교수 강의 진행

공인중개사 경매 이론·실전 한 번에 OK!

서울 강남 3구의 경매 열기가 뜨겁다. 서울 강남 3구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된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7월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고, 평균 응찰자 수 역시 두 달째 두 자릿수다. 향후 강남 주택시장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는 상승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일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551건으로 5월보다 45건 늘어났기 때문. 이는 2016년 5월에 607건을 기록한 이후 3년 1개월 만의 최고 신기록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경매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학습이 더욱 필요해졌다. 부동산 관련 경매 투자 및 접근 방식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중개인으로서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에듀윌 부동산 실무 대학은 부동산 경매 관련 학습 과정인 '리얼 경매 심화반'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과정은 부동산 중개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경매 투자를 통해 노후 대비 자산관리를 하고 싶은 분, 경매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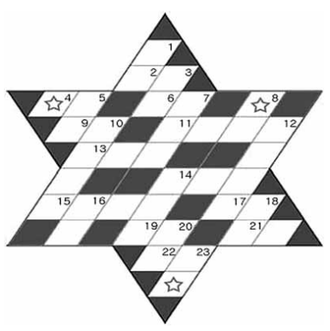
경매 강의 경력 16년의 에듀윌 부동산 실무대학 경매 전임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서 어려운 부분을 사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실제 현장 물건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궁금해하는 경매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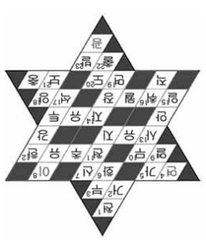
■ 가로 열쇠

02.승낙하지 않고 물리침. 04.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06.꽃이 피었다는 소식. 09.어린 무. 11.길이길이 잊지 못할 원한. "ㅇ추ㅇ한" 13.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이 소유하는 토지. 14.농구나 핸드볼 등에서, 상대편이 반칙을 했을 때 일정한 지점이나 선에서 공을 자유로이 던지는 일. 15.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17.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 19.얼굴이나 몸에 난 수염이나 잔털을 깎음. 21.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 22.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 세로 열쇠

01.인재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03.동물의 알이 까짐. 또는 까지게 함. 05.어떤 물질에 열을 줌. 07.새로운 세상. 08.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10.일을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만 처리하려는 태도. "ㅇ사안ㅇ" 12.한강에 돌 던지기. 14.중국 된장에 물과 전분을 섞고 고기와 채소 따위를 넣어 볶아 만든 양념을 국수에 비벼 먹는 음식 16.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 18.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20.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23.빛을 냄.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 이름이 됩니다.